

남여대협

총노선

남여대협 총노선 기초 토론 제안서

“인간을 향한 사상 통일과 여학생 운동의 정형 창출로 10만 학우와 더불어 통일시대 주체 여성의 상을 밝히자”

1. 사상노선

“주체여성의 상을 밝히자”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각층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민중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수백년의 세월속에 잘못 길들여지고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자각은 빠른속도로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삶을 찾아감에 있어서 갖가지의 논란과 편향들이 우리 사회의 특성에 맞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잡아가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내의 여학생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 여학생운동은 그 발생 초기에서 부터 해결해야할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여대생취업문제, 주한미군 범죄 근절, 정권의 갖가지 차별화 정책등등 여학생회 일꾼들은 전력을 다해 투쟁하였지만, 때 시기시기 대응에 그치고 그나마 정치투쟁의 뒷전으로 밀려나 그 성과점은 노력만큼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나열식의 소모적인 사업은 끝을 내고 솔하게 접하게 되는 여성문제들을 여학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의 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진단을 통해, 주체적인 몸짓으로 사물을 접할수 있는 여학우들의 힘이 모든 문제와 모순을 타파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2.조직노선

“자립 자활력 강화, 도약하는 간부의 자세로 스스로 주체 여성임을 선포하자”

여학생 운동의 발전의 열쇠는 각 대학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여학일꾼에게 있습니다. 여학단위가 여학우들 속에 깊이 녹아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단순히 단위 학생회와 인식부재나 사업의 부재로만 돌려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간부 개개인의 모범으로 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주위 간부도 안하는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식의 사고는 우리 운동을 더욱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나로부터 변혁적 자질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어머니 다운 품성으로 주변의 일꾼들에게 힘을주며, 집단주의를 실현하고 여학우 대중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쳐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고 도약하는 여학일꾼의 자세가 여학우 대중에게 믿음감있게 다가옵니다.

그러한 토대위에

ㄱ. 여학가 모임을 세워내자.

변혁운동에 함께 복무하는 여학가들로부터 식민지 진보적 청년여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만듭시다.

ㄴ. 각 단위에 소모임 건설에 주력하자.

학우들이 집단속에서 육친적 결합력을 높이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들어 갈수 있는 단위가 동아리와 더불어 소모임 입니다. 여성문제의 모순속에 사회부조리를 깨우치며 보다 적극적인 삶을 찾아나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이 학생회와 여학생회 어디서든 발휘되고 모아질수 있도록 지도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ㄷ. 과 여부를 집중 강화하자.

여학생운동의 토대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밀접히 수렴할 수 있는 기층과 여학생부에서 부터 마련됩니다. 전단위가 현재 수준에서 힘들다면 전략과를 선정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과여부를 통해 분출할 수 있도록 과 여부를 다방면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3. 대중노선

“5만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의 적극적 수렴으로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자.”

대학내에서 흔히 여학생 운동의 정형의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여학생운동의 정형은 여학우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학일꾼들이 조직자,교양자의 입장으로 필히 여학우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밀접히 생활할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 내용이라도 왜 그러한 요구가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일상적으로 전개할때 그것이 곧 여학우들 속에 진실하게 자리하는 여학생 운동의 정형이 되는 것입니다.

-- 95년 여학생 통일운동 --

“여학단위의 특성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하자.”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시키자며 이를 저애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을 배격하자.”

##실현방도

민족의 아픔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남북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풀어가며 반민족적 정권에 강제해 들어가자.

95년 남여대협 총노선

“ 인간을 향한 사상 통일과
여학생 운동 정형 창출로
10만 학우와 더불어 통일시대 자주적 시대,
주체 여성의 상을 밝히자. ”

1. 사상적 목표

“주체여성의 상을 밝히자”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 각층에서 숨죽이고 있던 수많은 민중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수백년의 세월속에 잘못 길들여지고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자각은 빠른속도로 평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세월 억눌려왔던 여성들의 삶을 찾아감에 있어서 갖가지의 논란과 편향들이 우리사회의 특성에 맞는 여성운동의 방향을 잡아가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내의 여학생 운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간 여학생운동은 그 발생 초기에서 부터 해결해야할 수많은 문제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여대생취업문제, 주한미군 범죄 근절, 정권의 갖가지 차별화 정책등등 여학생회 일꾼들은 전력을 다해 투쟁하였지만, 시기시기 대응에 그치고 그나마 정치투쟁의 빛전으로 밀려나 그 성과점은 노력만큼 얻어내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문제나열식의 소모적인 사업은 끝을 내고 슬하게 접하게 되는 여성문제들을 여학우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주체적 여성의 상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진단을 통해, 주체적인 몸짓으로 사물을 접할수 있는 여학우들의 힘이 모든 문제와 모순을 타파하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학우들 스스로가 세계의 주인으로서 발현되는 자주성을 억압하는 제반의 요소를 타파하고 자신의 삶과 세계의 주인으로서 지위와 역할을 올곧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것입니다.

- ▶ 간부들은 매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학우들을 단순히 객체화, 대상화 시키지않고 학우들 스스로 참여하는 속에 주체적 여성의 모습을 깨달아갈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사업을 펼쳐 내기위해서는 간부들의 사상이 철저히 민중들 즉, 학우 대중을 기반으로 단련 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겐 필요합니다.

자보 한장을 쓰더라도 문제인식과 해결방침, 그속에서 학우개인이 어떻게 복무할수 있는가의 내용 까지 담아 낼수 있도록, 간부들의 실천을 담보한 학습과 논의력 향상을, 주체 여성의 상을 밝히는 원칙하에 진행되어야 할것입니다.

2. 조직적 목표

“자립 자활력 강화, 도약하는 간부의 자세로 스스로 주체 여성임을 선포하자”

여학생 운동 발전의 열쇠는 각 대학단위를 책임지고 있는 여학일꾼에게 있습니다.

여학단위가 여학우들 속에 깊이 녹아들어가고 있지 못하는 원인을 단순히 단위 학생회의 인식부재나 사업의 부재로만 돌려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간부 개개인의 모범으로 부터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주위 간부도 안하는데 나 하나쯤이야하는 식의 사고는 우리 운동을 더욱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뜨려 버립니다. 나로부터 변혁적 자질을 갖추는데 노력하고 어머니다운 품성으로 주변의 일꾼들에게 힘을주며, 집단주의를 실현하고 여학우 대중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끊임 없이 부딪쳐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지치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고 도약하는 여학일꾼의 자세가 여학우 대중에겐 믿음감있게 다가설것입니다.

그러한 토대위에

ㄱ. 여활가 모임을 세워내자.

변혁운동에 함께 복무하는 여활가들로부터 식민지 청년 여성으로서 자신의 처지와 조건을 올바르게 이해했을때 여성민중의 삶을 뼈속 깊이 이해할 수 있는것입니다. 식민지 진보적 청년여성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가 구체적 실천의 내용까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만들어 가기위해 여학간부들의 계획성있는 준비가 적극적이고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ㄴ. 각 단위에 소모임 건설에 주력하자.

학우들이 집단속에서 육친적 결합력을 높이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해들어 갈수 있는 단위가 동아리와 더불어 소모임 입니다. 여성문제의 모순속에 사회부조리를 깨우치며 보다 적극적인 삶을 찾아나갈수 있도록, 그리고 그 힘이 학생회와 여학생회 어디서든 발휘되고 모아질수 있도록 지도를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ㄷ. 과 여부를 집중 강화하자.

여학생운동의 토대는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가장 밀접히 수렴할 수 있는 기층 과여학생부에서 부터 마련됩니다. 전단위가 현재 수준에서 힘들다면 전략 과를 선정해 여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과여부를 통해 분출할 수 있도록 과 여부를 다방면으로 강화시켜야 합니다.

- ▶ 총여에서 직접 한두개 과를 선정하여 단여 간부들과 집중 지도를 통해 한학기에 한번정도 대중투쟁을 조직하여 총화할 수 있도록 합시다.
- ▶ 또한 총여, 단여, 과여로 이어지는 세로모임을 적극 강화하여 전일적인 지도체계 속에 총여와 기총여회가 상호보완 발전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현재 여회의 수준에서 간부들의 조직자 교양자로서의 모든 노력이 단순히 여학우들의 의식을 깨우치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철저히 차기 여회를 이끌수 있는 인자의 발굴부터 핵심일꾼으로 단련되고 자랄수있게 지도에 신경써야 합니다.

3. 대중적 목표

"5만 여학우의 이해와 요구의 적극적 수렴으로 여학생운동의 정형을 창출하자."

지금 대학내에서 여학생 운동 정형의 필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여학생운동의 정형은 여학우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표출시키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학일꾼들이 조직자, 교양자의 입장으로 필히 여학우 대중속으로 들어가 그들과 밀접히 생활할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작은 사업 내용이라도 왜 그러한 요구가 나왔는지를 분석하고 일상적으로 전개할때 그것이 곧 여학우들 속에 진실하게 자리하는 여학생 운동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기 되어지는 사업은 사전 정치사업을 통해 간부들과 공유하며, 교양되고 힘을모아 집행하고자하는 결의를 모아내는 과정을 기필코 거쳐야합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져야할 관점은

여학우등을 대상화 시키지않고 주인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기간에 가졌던 간부들의 행사 치루기식 사고, 그래서 학우들을 자리 메꾸는 대상으로 전략 시키는 작풍을 버려야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시일 안에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며 혁신하는 간부의 자세로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수렴 -- 사업내용 마련 -- 사전 정치사업 -- 평가(학우들의 평가와 목표에 기반한)-- 전사업내용을 보완한 새로운 사업내용 -- 정치사업..... 이러한 사업진행을 충실히 반복함으로써 극복될수 있는것입니다.

학우 요구수렴의 방법은 기간 진행되고 있는 화. 목. 토운동의 계승 발전과 목적의식적인 일상적 만남, 주일에 하루 집단만남, 수업전 강의실 오분만남, 다양한 형태의 설문지 만남등 대학내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내용을 일년의 내용으로 꾸준히 가져가자.

95년 여학생 통일운동 방향

“여학단위의 특성에 맞는 통일운동을 전개하자.”

**실천구호 : “ 민족대단결 의식을 고취시키며,
이를 저해하는 반민족 반통일 세력을 배격하자! ”**

- 실현방도 : 민족의 아픔 정신대 할머니 문제를 남북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풀어가며 반민족적 정권에 강제해 들어가자.

지자체 선거 방침

자주 민주 통일 운동에 헌신하며, 이 지역 여성문제 해결, 특히 여대생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오도록 목소리를 모아낸다.

- 여학우 대토론회
- 후보자와 간담회 등을 조직하자.

<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